

한옥 건축 교육의 메카 '재입증'

전북대, 한옥전문인력양성 기관 선정... 4억5천만원 확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19년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북대를 비롯해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대 등이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억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예비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한옥설계교육'을 6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한옥기술종합센터에서 이 교육을 실시해 4년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에 선정되며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 건축 교육의 메카임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다 정부의 교육 일원화 시책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사업이 시작돼 다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는 이달 중 교육생을 모집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기초반과 더불어 기존 교육을 이수한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반도 구성돼 교육의 차별성과 질

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교육에는 그간 전국의 건축사들이 예비 건축사들이 서울은 물론 강원도, 부산 등에서까지 지원해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심지어 외국인 학생과 현직 교수도 정원의료 선발돼 교육이 이뤄질 만큼 많은 이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진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한옥 관련 유명 교수진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인간문화재 제74호인 최기영 대목장을 석좌교수로 임명해 특화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전북대는 시공실습의 결과물인 한옥형 정자를 실습이 끝난 뒤 해체하지 않고 캠퍼스 본부 앞과 박물관 등 대학뿐 아니라 국립무형유산원, 고창 아산초등학교 등 지역에도 기증해 대학과 지역 기관에 고전적 품위를 더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생들은 전주시에 폐허하우스 사업에 참여해 낡은 담장 페인트 칠하기 등에 참여했고, 고창군의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집집 고쳐주기 봉사활동도



전북대가 국토부가 선정한 2019년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됐다.

참여하며 큰 칭송을 받기로 했다. 남해경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재개된 이 사업에 우리대학이 다시 선정된 것은 국내 최고의 한옥 건축 교육의 중심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룬 교육으로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는 전국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한옥건축 체험캠프'를 비롯해 어린이 한옥캠프, 외국인 한옥캠프, 대학생 한옥캠프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오늘부터 19일까지 꿈과 이상 담은 전시회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꿈과 이상을 담은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중등미술교육연구회가 주관한 공모전 '제13회 푸른 꿈 맑은 생각 표현전' 수상작이다. 이번 전시회는 문예, 미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 초·중·고 학생들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해 창의성 있는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고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맞아 문화와 예술 스포츠를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년체전 및 스포츠' 주제 부문을 추가 공모했다.

그 결과 시화, 회화, 조소, 디자인·영상, 공예, 설치미술, 소년체전, 스포츠 등 8개 분야에 1,292명이 응모해 300여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전시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1, 2층에서 30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며,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25일부터 28일까지 익산 공설운동장 현관에서 전국 미술공모전으로 100여점이 전시될 계획이다.

한편 시상식은 17일 오후 5시 30분 전북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이 지난 주말 제5회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대상'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학과장 유철중) 학생들이 지난 주말 대학 주최로 개최한 제5회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열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도 동상과 특별상을 받았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대 컴퓨터공학부가 주관하고 컴퓨터공학부 'WHO' 동아리가 개최한 2019 제5회 아이디어 해커톤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소프트웨어가 접목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전북 소재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해 경쟁을 펼쳤다.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해진보스'(팀장 남운수)팀은 WebOS 기반 가전제품에서 스마트폰 키워드

알람을 수신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을 선보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BabySeokArmy' 팀은 '이른 시기 뒤집기를 하는 아기들을 위한 뒤집기 사고 방지 IoT 플랫폼'을 통해 2등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은 2017년 K-해커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최근 해커톤 관련 각종 대내·외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전북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 우수 교원 포상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에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정부포상 및 교육감포상을 받았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포상별 수상자는 근정포상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114명, 교육감표창 239명 총 358명이다.

수상자들은 교과지도·생활지도·진로지도·평생복지·교육혁신 등의 부문에 크게 기여한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습부진자 지도와 학업성취도 향상, 독서교육 활성화,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 위기학생 지도, 학생의 적성 개발, 주요 교육정책 추진

등을 통해 학교교육내실화에 힘써왔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남원용성고등학교 김영심 교사는 보건교사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흡연예방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과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공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교육청은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하는 즐겁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새롭게 빛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우대하는 교육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지역 스포츠클럽이 한자리에

18일 완주서 스포츠클럽 교류전

전북지역 스포츠클럽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14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2019 전라북도 스포츠클럽 교류전'이 오는 18일 완주군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전에는 도내 8개 스포츠클럽 중 2곳(고창생물권공공스포츠클럽·무주태권도원공공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전북스포츠클럽과 전주비전스포츠클럽, 군산스포츠클럽, 익산스포츠클럽, 완주스포츠클럽, 남원거점스포츠클럽 등 도내 6개 클럽과 전남 순천스포츠클럽이 초청 돼 진행된다.

축구와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태권, 청백전 등 총 6개 종목에 약 450명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당일 오전 10시 삼례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며 화합의 장인 교류전에 맞게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2018 스포츠클럽 선수저변확대 성과평가'에서 도내 스포츠클럽 대부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장은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 스승의날 기념 교사들에 축하 편지 보내

김승환 교육감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도내 유·초·중·고 교사들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

김 교육감은 편지에서 "선생님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주고, 친구가 되어주

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다"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교육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선생님과 함께 해서 전북교육이 빛난다"며, 스승의 날을 축하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SNS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 개최

군산대학교는 최근 대학 본부 총장 접견실에서 '제6기 군산대학교 SNS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중어중문학과 김한별 등 5명의 학생을 제 6기 군산대학교 SNS 서포

터즈로 임명했다. 제 6기 SNS 서포터즈는 앞으로 군산대학교 유튜브 계정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 및 채널 관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